

LA총영사관 앞 '개고기 식용 반대' 시위

미국 연예인들이 LA총영사관 앞에서 개고기 식용반대 시위를 벌였다.

18일 생활연예매체 피플닷컴에 따르면 프레슬리의 전 부인인 배우 프리실라 프레슬리, 모델이자 배우인 킴 베이싱어 등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회원들과 함께 초복 전날인 16일 총영사관 앞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stop dog meat)'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또 박제된 개를 들고 퍼포먼스도 했다. 프리실라 프레슬리는 흰 장갑을 끼고 코에는 개 코 모양의 반창고를 붙인 채 시위에 참가했다. E.G.데일리, 도나 데리코 등의 배우를 비롯해 100여 명이 이 시위에 동참했다.



LCA의 제이제이 박 대변인은 "한국에서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국민청원 운동이 펼쳐지는 등 식용견이 아닌 반려견 인식이 점차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개 농장이 존재하고 있어 이같은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위는 멈추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LCA는 웹사이트에서 "한국에서 '복날' 로 불리는 가장 더운 여름날에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개고기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 면서 "더위를 이기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고자 시위를 기획했다." 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과 워싱턴DC에서도 초복에 맞춰 같은 주장을 펴는 시위를 벌였다.

LA 총영사관측은 "한국에서도 보신탕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며 "앞으로 주류사회에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불가리아에 부는 '한드 열풍'

한국드라마 '대장금' 이 30일부터 불가리아 국영 방송(BNT) 메인 채널에서 방영된다. 제목은 '궁의 보배' (ѿкровище в двореца)로 정해졌으며, 불가리아어 더빙으로 방영된다.

16일 BNT에 따르면 이 방송사는 대장금 종영 후 KBS '태양의 후예' 와 SBS '낭만닥터 김사부' 도 방영할 예정이어서 불가리아에 '한드(한국드라마)' 열풍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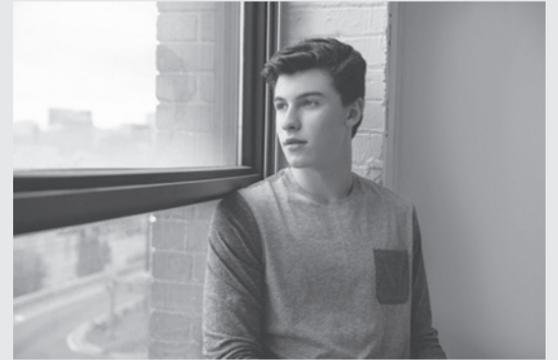
BNT는 대장금 방송을 앞두고 아침 뉴스쇼에 정진규 주불가리아 대사를 초대해 한국의 전통과 대중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불가리아는 옛 공산정권 시절부터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큰 규모의 대사관을 불가리아에 두고 있다. 불가리아는 공산정권 붕괴 이후부터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정진규 대사는 "최근 불가리아 매체에서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부쩍 자주 소개되며 케이팝을 비롯해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도 높아져서 BNT가 한국드라마를 계속 방송하려는 것 같다" 며 "한국 드라마가 불가리아 TV의 주류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선 멘데스, 비버와 약혼한 전 여친 헤일리 "축하"



팝스타 선 멘데스(사진)가 자신과 열애설이 불거졌던 모델 헤일리 볼드윈에 대해 언급했다.

선 멘데스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헤일리 볼드윈이 저스틴 비버와 약혼했다는 기사를 봤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축하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다." 라고 말했다.

선 멘데스와 헤일리는 올해 초 열애설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난 7일 헤일리는 저스틴 비버와 약혼했다. 이때 헤일리는 SNS에 올린 선 멘데스의 사진을 모두 지웠다. 이런 이유로 헤일리 볼드윈이 선 멘데스와 헤어진 후 곧바로 저스틴 비버와 교제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비버와 헤일리는 2015년에 잠시 만난 후 최근 재결합해 약혼했다. 당시 비버는 SNS에 "헤일리 볼드윈과 함께 올해는 정말 내게 완벽한 행운의 해" 라며 공개적으로 헤일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1221호 숫자퍼즐 정답								
9	8	4	1	2	5	6	3	7
5	7	2	3	8	6	1	9	4
1	3	6	4	9	7	5	8	2
8	9	1	5	7	2	4	6	3
6	5	3	8	1	4	7	2	9
2	4	7	6	3	9	8	1	5
7	1	8	9	4	3	2	5	6
3	2	5	7	6	1	9	4	8
4	6	9	2	5	8	3	7	1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운(運)의 흐름에 따른 사업진로 결정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사업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크게 모험을 거는 일로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사업성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어느 중년부인과 딸의 진로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딸의 사주를 보면서 건넌 이야기는 "타고난 팔자를 보면 어려서 부친과는 인연이 박했을 것이나 그래도 모친의 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팔자가 됩니다. 그래도 타고난 상모(相貌)가 출중하고 자격증 관련 전문직이나 교육분야 또는 일반적인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팔자가 되지만 운(運)의 흐름을 볼 때 직장생활을 하기 힘든 흐름이었으므로 자기 사업을 했을 것인데요."라고 말을 하니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학생 수가 많아져서 더 큰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해준 이야기는 "지금은 사업규모를 키울 때가 아니고 오히려 내실(內實)을 기하며 규모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세운(歲運)의 도움으로 그런대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운로라고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현금의 유동성이 나빠지는 운(運)의 흐름이 시작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때 말씀이 "다른 곳에서는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라고 되묻는다. 그래서 필자가 대답해준 말은 "다른 곳은 몰라도 필자가 보는 역학(易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사업을 확장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해 주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원장님 말씀이 더 신뢰가 간다고 하면서 자기 딸에게 학원을 옮기지 말라고 말해 주겠다고 하면서 돌아간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훗날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가오는 운(運)의 흐름을 제대로 조언해 주어야 되는 역학자(易學者)의 책임은 실로 막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